대한야구협회 이병석 회장 사임

국회의원 겸직 금지 권고에 결국 물러나



아마추어야구를 관장하는 대한야구협회 이병석 회장(새누리당 국회의원·전 국회부의장·사진)이 결국 '국회의원 겸직 금지' 권고를 받아들여 전격 사임했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야구협회 이사회에서 "제21대 대한야구협회 회장에 취임한지 2주년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기에 회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임의 변을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2월 같은 당 소속의 강승규 전임 협회장 등과 경선을 벌여 과반수 득표에 성공하며 4년 임기의 제21대 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아마야구의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야구대제전 및 봉황대기 전국고교대회 부활, 대한야구협회장기 전국고교대회 신설, 2016년 제7회 세계여자월드컵의 부산 기장군 유치를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리틀대표팀의 월드시리즈 우승, 청소년대표팀의 아시아선수권 우승, 국가대표팀의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대한야구협회장직에 강한 애착을 보였으나, 더 이상 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이날 전격적으로 사임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국회의원 스포츠단체장 겸직 금지 권고가 있었던 데다, 18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결국 대한야구협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회장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아마추어야구가 힘찬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더 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그동안 분에 넘치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야구인과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야구협회와 대한민국 야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야구협회장 정관에 따라 일단 김종업 실무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맡으며, 60일 이내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LA 다저스 류현진은 어깨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 2015시즌을 시작한다. 다행히 큰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수술은 피했다. AP뉴시스

류현진, 어깨수술은 피했다

MRI결과 2012년 입단 당시 수준…15일 DL

최악은 피했다. 그러나 LA 다저스 류현진(28)은 부상자 명단(DL)에서 메이저리그 시즌 개막을 맞아야 한다.

다저스는 25일(한국시간) "정밀진단 결과, 류현진의 어깨에 구조적 이상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류현진은 18일 텍사스와 시범경기(3이닝 3안타 1볼넷 3실점)에 등판한 뒤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했다. 다저스는 3일간의 휴식을 줬다. 그러나 23일 재개한 캐치볼에서 류현진은 또 통증을 느꼈다. 결국 다저스는 류현진을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LA로 이동시켜 구단 주치의인 닐 엘라트리체에게 정밀진단을 받도록 했다.

엘라트리체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류현진의 어깨가 2012년 다저스 입단 당시 메디컬 체크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수술 없이 15일짜리 DL에 올라 어깨를 회복한 뒤 복귀를 준비할 예정이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에도 어깨 통증으로 4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DL에 등재된 바 있다. 9월에도 어깨 통증이 재발해 24일 만에 포스트시즌에 나섰다.

제3선발 류현진이 이탈한 것에 대해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4월을 최대한 4인 로테이션으로 버티되 5선발이 필요하면 불펜투수를 임시선발로 기용할 방침임을 드러냈다. LA 타임스는 '만약 류현진의 결장이 5월까지 이어지면 마이너리그에서 유망주 투수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두산 홍성흔은 주장 완장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팀의 든든한 리더다. 25일 코칭스태프가 출정식으로 자리를 비우자, 포수 마스크를 쓰고 공을 받고 펑고를 쳐주는 등 일일코치 역할도 만점으로 해냈다 스포츠동아DB

곰들의 정신무장…"우승 못할 이유 없다"

홍성흔이 지켜본 '더 좋아진 두산'

쉬라고해도 쉬는 선수가 없을정도 열심
김태형감독 '집중의 리더십'도 돋보여
사석에선 형…그라운드선 무서운감독

"개막 앞두고 긴장한 사람 있으면 다 나와서 내 펑고 받으라고 해."

두산 홍성흔(39)의 활기찬 농담에 후배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25일 잠실구장.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개막을 준비하는 두산의 자율 훈련이 한창일 때였다. 선수들이 하나둘씩 그라운드로 나와 몸을 풀고 개인훈련을 시작했지만, 김태형 감독과 코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매년 관례로 해온 2015시즌 코칭스태프 출정식을 위해 딱 하루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그 대신 홍성흔이 '플레잉코치'로 변신했다. 불펜에서 포수 마스크를 쓴 채 투수들의 공을 받았고, 외국인야수 잭 루츠에게 직접 고함을 질러가며 평고를 쳐줬다. 팀 내 최고참의 책임감이었다. 홍성흔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느라 정말 바빴다. 이제 내 훈련도 좀 해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홍성흔 "후배들, 자세부터 달라졌다"

신임 감독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두산은 올해 목표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잡았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두산을 우승 후보 가운데 한 팀으로 꼽는다. 라커룸의 리더인 홍성흔 역시 팀과 마음을 같이 한다. 더불어 '올해는 해볼 만하다'는 기대감도 있다. 후배들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어서다. 홍성흔은 "정말 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한다. 쉬라고 해도 쉬는 선수가 잘 나오지 않을 정도"라며 "프로야구선수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이 모두 커진 것 같다. 웨이트트레이닝과 러닝도 정말 많이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같은 강속구를 던지면서도 매년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후배 김강률을 치켜세웠다. 스프링캠프 때부터 성과가 좋아 올 시즌 팀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투수다. 홍성흔은 "(김)강률이가 정말 열심히 했다. 내게도 '올해가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하더라. 정신적인 자세부터 달라진 것 같다"며 "내가 야구장에 훈련하러 일찍 나올 때 늘 강률이가 먼저 와 있는 모습을 봤다"고 귀띔했다.

●김태형 감독 리더십에 선수들 '집중'

선수 시절부터 남다른 카리스마로 유명했던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도 선수단을 하나로 묶는 숨은 비결이다. 홍성흔은 "김 감독님은 사석에선 정말 편한 형처럼 대해주시지만, 그라운드에선 눈빛만 봐도 결코 선수들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분"이라며 "크게 소리를 내시지 않고 긴 말을 하시지 않아도, 조용한 말 한마디로 선수들 모두가 집중하게 만드시는 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는 한국프로야구도 용병들이 다들 오고 싶어 할 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전력도 평준화된 것 같다"며 "감독님을 중심으로 다같이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 사이 두산의 젊은 선수들은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은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배트를 휘둘렀다. "이제 좀 그만 해도 된다"는 고참들의 주문이 떨어진 뒤에야 비로소 배팅케이지를 정리했다.

잠실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송명근 자존심·김사니 열정…'봄배구' 열쇠는 멘탈

▌V리그 포스트시즌 키워드

"전광인보다 못해" 신영철감독의 말
OK저축은행 송명근의 투지 불태워
데스티니 공백, IBK 열정 북돋는 계기
현대건설 양철호감독 칭찬은 되레 독

'NH농협 2014~2015 V리그' 포스트시즌의 키워드는 멘탈이 될 것 같다. 남녀 플레이오프(PO)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귀에 따갑도록 들어온 정신력, 바로 멘탈이었다. 정규리그 남자부 2위 OK저축은행은 선수의 자존심과 머리로 하는 수비로 3위 한국전력의 추격을 힘겹게 뿌리쳤다. 여자부 2위 IBK기업은행과 3위 현대건설의 운명을 가른 것도 목표를 향한 열정과 불안감 극복 능력의 차이였다.

정규리그 우승팀 삼성화재와 도로공사도 강한 멘탈이 돋보인다. 삼성화재의 7시즌 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 관록은 상대에게 큰 부담이다.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은 "경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요구하며 항상 선수들을 강하게 단련해왔다. "상대를 제압하지는 못해도 버틸 수는 있다"는 자신감이 삼성화재를 떠받치는 멘탈의 실체다.

도로공사는 나이 합계 110세인 베테랑들의 경험이 눈에 띈다. 장소연(41), 이효희(35), 정대영(34)이 챔프전에서 따낸 우승 반지가 무려 7개다. 이번 시즌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았던 도로공사의 장점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언니'들의 강한 멘탈이었다. 배구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머리의 배구, 도로공사의 플러스 알파 전력은 수치로 드러나진 않지만 승패의 중요 변수다.



OK저축은행 송명근



기업은행 김사니

●송명근의 자존심과 강영준의 머리로 하는 수비

OK저축은행은 한국전력과의 PO 2경기에서 모두 풀세트 접전 끝에 연승을 거뒀다.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은 PO를 앞두고 속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주공격수 시몬의 무릎상태가 좋지 못해 사실상 포기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1차전에서 송명근이 기대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미디어데이에서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이 했던 발언이 선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포지션 비교를 했을 때 송명근보다는 전광인(한국전력)이 낫다"는 말에 송명근은 숨겨뒀던 투지를 불살랐다. 1차전 26득점의 맹위를 떨쳤다. 자신의 시즌 최고기록에 1점 모자랐지만, 김 감독은 "송명근 덕분에 이겼다"고 말했다. 1차전 후 송명근은 "비교 받고 기분 좋은 선수는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데이에서의 그 한마디가 이런 영향을 미칠 줄은 누구도 몰랐다.

2차전에선 3세트 도중 나온 강영준이 승패를 결정했다. 3세트 12-17 뒤진 상황에서 다음 세트에 대비한 주전들의 체력비축을 위한 선수교체였지만, 강영준은 들어가자마자 경기의 흐름을 뒤집어버렸다. 젊은 선수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수비로 팀을 안정시켰다. 강영준이 서브권을 잡은 상황에서 연속득점이 터졌고, 25-23으로 역전했다.

김 감독은 "올 시즌 최고의 선택은 오늘 강영준의 투입이었다. 느낌이 왔다. 운도 따른 것 같다"며 기뻐했다. 송희채는 "(강)영준이 형이 머리로 수비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주장 강영준은 젊은 후배들의 사기를 결정하는 상징적 존재다. 24일 3.3kg의 둘째 딸도 얻었다. 구단은 "큰 경기(챔피언 결정전)를 앞두고 좋은 조짐"이라며 흐뭇해했다.

공교롭게도 남자부 PO는 성균관대 출신 선수들이 주력인 한국전력과 경기대 출신이 주축인 OK저축은행의 맞대결이었다. 강영준, 송명근은 경기대 출신이다. 경기대는 대학배구 최강을 오랫동안 지켰다. 그 자신감이 PO에서도 드러났다. 예전 자유계약제도 때 우승팀 출신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계약금을 더 받았다. 우승을 해본 팀의 선수는 그렇지 않은 팀의 선수보다 멘탈에서 강하다고 믿어서였다.

●김사니의 열정과 현대건설 선수들의 불안감

데스티니가 4라운드 도중 부상을 당해 정규리그 우승 목표를 수정했던 IBK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데스티니가 없는 상황에서 김희진과 박정아가 많은 공격가담을 통해 성장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이었고, 자신감이었다.

여기에 대한민국 최고 세터라는 자부심은 있지만 우승 반지가 하나뿐인 김사니의 열정이 더해졌다. IBK 이정철 감독은 "최근 (김)사니가 가장 열심히 했다. 기특하다"고 밝혔다. 김사니에게는 큰 경기에 필요한 집중력과 냉정함이 있었다. 평소 이 감독의 혹독한 조련에 단련된 IBK 선수들은 큰 경기의 부담 속에서 더욱 집중했다. 타임아웃 때 감독이 작전지시를 내리는 중에도 선수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며 플레이를 조율했다. 능동적으로 경기에 몰입했다. 덕분에 PO 내내 벤치가 시끌벅적했다.

혹시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달래가며 칭찬하던 현대건설과는 벤치의 분위기가 정반대였다. 현대건설은 감독의 어르고 달래는 지시는 있었지만, 선수들이 수동적인 위치에서 받아들이기만 했다.

현대건설은 PO를 앞두고 선수들의 감성을 어루만지려고 노력했다. 부모들을 숙소로 불렀고, 큰 경기의 부담으로 PO를 앞두고 배구를 포기하려던 어느 선수는 양철호 감독이 따로 만나 화장품도 선물하며 마음을 돌렸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양 감독은 PO 내내 선수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언급했고, 타임아웃 때도 호통 대신 격려를 택했다. 패색이 짙던 2차전 3세트 초반 단 한 번의 질책을 제외하고는 계속 등을 두드려줬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아무리 주위에서 선수들의 기를 살리려고 해도 결국 경기의 부담을 이겨내는 것은 선수 자신이었다. 역시 배구는 사람이 하고,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머리, 바로 멘탈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